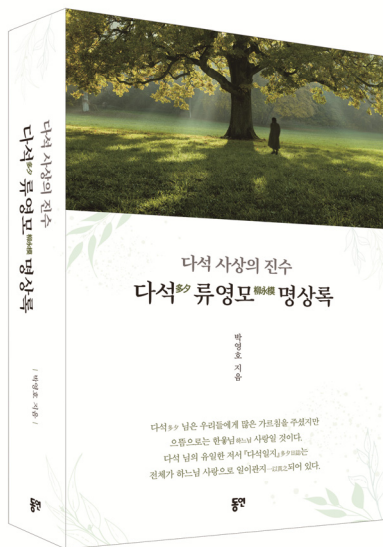


다석 사상의 진수

다석多夕 류영모柳永模 명상록



지은이: 박영호

엮은이: 다석학회

출간일: 2022년 7월 30일

분야: 인문/철학/한국사상

판형: 신국판(152*224)

쪽수: 744쪽

정가: 29,000원

ISBN: 978-89-6447-783-0 94100

ISBN 978-89-6447-782-3 (박영호의 다석

저작 선집)

#한국사상#류영모(유영모)#다석사상#탐진치#제나#얼나#다석일지

다석 류영모 선생의 공인 제자 박영호의 다석의 한시(漢詩) 해설서

이 책은 다석 류영모 선생의 유일한 저서인 『다석일지』(전 4권)에 나오는 한시(漢詩)를 선별하여 알기 쉽게 풀이한 해설서이다.

이 책의 초판은 2000년에 출간(두레출판사)되었는데 초판 출간 이후 절판되어 다석 사상을 알고자 하는 수많은 독자와 연구자들이 아쉬움을 토로하던 차, 초판에서 발견된 많은 오류를 바로잡아 이번에 개정판으로 출간(도서출판 동연)하게 되었다.

다석 사상에 대한 책이 여러 권 나와 있는데, 그중 직계 1대 제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책의 저자인 박영호와 김흥호 두 사람이다. 두 분이 쓴 여러 다석 사상 해설서가 있는데, 그 중 이 책은 다석 선생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 명상 중에 떠오르는 영감을 기록한 시조(1,700수)와 한시(1,300수) 가운데 한시 99수를 자세히, 알기 쉽게 풀이한 것이기에 다석 선생의 생각을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책이다.

한국 사상을 찾아서 - 다석 류영모의 생각

다석 류영모의 사상이 이제 널리 알려지고 있다. 특히 K문화가 세계적으로 각광 받으면서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한국인들도 “한국 사상이란 무엇인가”, 그 사상의 근저에는 어떤 사상의 전통과 인물이 있는가를 의문시하는 흐름에서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다석 류영모 사상’이다.

1900년부터 개최된 세계철학자대회(World Congress of Philosophy)가 2008년 “제22차 세계 철학대회”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렸는데, 여기서 주최측은 한국 사상가와 철학자로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우암 송시열, 다산 정약용, 다석 류영모와 씨을 함석헌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다석 선생의 철학과 생각은 생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그를 따르는 제자도 많지 않았다. 특히 다석 선생이 인정하는 제자는 그나마 박영호, 김홍호 두 분이었고, 그중 다석 선생이 수료증을 준 공인 제자는 박영호 한 분뿐이다.

박영호 선생은 김홍호 선생과 더불어 각각 20여 권의 다석 관련 책을 펴냈는데, 이 책도 그중 한 권이다.

다음은 다석 선생을 따르며 생전과 사후에도 그의 사상을 널리 알리는데 큰 힘을 쏟았던 류달영 박사(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추천의 글’이다.

“다석은 일상에서도 창조의 생활을 영위하였다.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고전을 읽고 명상을 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영감을 한글 시조와 한문시로 일지(日誌)에 기록하였다. 그 수가 3천이 넘는데, 그의 생각을 표현할 적당한 말이 없을 때는 옛말을 되찾아 쓰기도 하고 스스로 새 말을 만들어 쓰기도 하였다. 학자들은 다석의 종교다원주의가 서양의 학자들보다 70년이나 앞서서 제창되었다고 감탄한 바 있다. 참으로 그는 동서 고전에 널리 통할 뿐 아니라 한결같이 자신의 삶과 사상을 창조하면서 살았다.

다석의 차원 높은 생각과 믿음을 이처럼 알기 쉽게 쓸 수 있는 사람은 김홍호, 박영호 두 제자 외에는 없을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다석의 글을 읽어도 그 뜻을 모른다. 그중에서 이번에 박영호 선생이 다석 선생의 사상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소개하는 해설서를 냄으로써 스승의 은혜에 다소라도 보은하게 되어 큰 다행으로 여긴다. 이 책이 널리 읽혀 불모지(不毛地)로 변해 가는 이 시대 한국 사회의 정신 육성에 기름진 토양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이 책의 소개

류영모는 살아서 책을 낸 일이 없다. 류영모의 저술이라면 잡지 「동명」(최남선)과 「성서조선」(김교신)에 기고한 몇 편의 글과 일기뿐이다. 일기에는 자신이 지은 한시(漢詩) 1천 3백 수와 시조(時調) 1천 7백 수가 실려 있다.

류영모의 일기를 『다석일지』(多夕日誌)라 이름하여 영인본으로 출판하였는데(홍익재) 읽은 사람마다 어려워서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김홍호 교수가 『다석일지』 전체에 간략한 풀이를 달아 『柳永模의 명상록』(성천문화재단)으로 출판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이 김홍호(金興浩) 교수의 풀이조차도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

류영모의 값진 영원한 생명의 글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핵심에 가까이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류달영 박사가 이 사람에게 누구나 알기 쉽게, 풀이를 해 보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쉽게 알게 하자면 적은 분량을 자세히 풀이하는 길뿐이다. 그리하여 먼저 한시 1천 3백 수에서 무게 있는 99수를 골라서 한시(漢詩) 한 수에 5~6쪽의 충분한 풀이를 하였다.

_ 박영호(저자), 〈머리말〉 중에서

다석(多夕) 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으뜸으로는 한옹님(하느님) 사랑일 것이다. 다석 님의 유일한 저서 『다석일지』(多夕日誌)는 전체가 하느님 사랑으로 일관(一以貫之)되어 있다. 다석 님은 한옹님(하느님)을 처음에는 혼으님으로 쓰셨다. 혼은 크다는 뜻이고, 으는 모든 음의 처음이고 총괄하는 뜻이 있다. 혼으는 온통이요, 전체이다. 님이라는 것은 ‘머리에 이다’라는 것이고, 임(厯)이 아니다. “물건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머리에 이고 간다. 참 받들어 가는 것이다.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을 임(님)이라고 한다. 님이라고 할 때는 아주 정중히 섬기는 것을 말한다”(『다석어록』). 하느님에게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데 우리는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붙일 수가 없어서 붙여 으를 드리는데, 그것도 작은 으가 아니고 큰으 혼으님이시다. 나중에는 한옹님으로 바꾸어 쓰셨다. 우리는 낮고 하느님은 우에 계신다.

_ 김병규(다석학회 총무), 〈책을 펴내며〉 중에서

최근에 박영호 선생이 어렵기로 이름난 『장자』(莊子)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저술, 출판하였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석이 남긴 어려운 한글 시조와 한시(漢詩)도 이처럼 알기 쉽게 해설되어서 단행본으로 발간된다면 사회교육을 위한 책으로 널리 읽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박 선생에게 그 뜻을 말했더니 곧 찬성하고 저술에 착수하여 20세기 말에 한국문화를 값지게 장식할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어떤 분은 다석을 공자(孔子)와 대등한 인물이라고까지 평하는 이들이 있다. 나로서는 그들의 평에

저항을 느끼지 않는다. 공자는 고대 중국의 어지러운 춘추전국 시대에 여러 나라를 두루 탐방하면서 평화의 정치를 펴도록 유세하였으나 어느 임금도 그가 주장하는 왕도정치(王道政治)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노년에 저술과 교육에 전력을 기울여 동양 제일의 성인으로 추앙받게 되었다. 다석도 좁은 한반도 안에서 일생을 수난 속에서 살았는데, 시종 교육에 진력하였다. 서울 YMCA가 그의 주된 교육장이었다. 다만 그의 말이 난해하기 때문에 공자와는 달리 평생을 따르는 제자가 많지 않았다.

— 류달영(서울대 명예교수), 〈추천의 글〉 중에서

▣ 차례

제1편

1. 허공과 물질은 하나로 같다 空色一如
2. 보자, 대자연(하느님)을! 觀太自然界
3. 만드신 경위 創造始末
4. (하느님)상 보기 觀相
5. 삼독을 버린 뒤에 (니르바나의) 길을 닦는다 除三毒而後修行
6. 깨달은 이(크리스찬) 基督者
7. 일어나를 모신 마음 基督心
8. 열 사람 人子
9. 자 모두 나아가 돌아갈 줄을 알자 夫亦將知復
10. 참 길은 들락날락 아니해야 人道非首鼠
11. 사람의 몸은 언짢다 民身不仁
12. 제나(自我)가 죽어야 일어나(靈我)가 산다 終始
13. 깊음(죽음)에 막다르고 얕음(삶)을 밟다 臨深履薄
14. 끝은 침과 같다 終如始
15. 옛 베개를 생각지 않고 내게서 새 침상을 찾아 不思舊枕求我新床
16. 낮이나 밤이나 (우러러야지) 晝夜
17. 하느님의 소리(뜻)가 사람의 말로 天音人言
18. 사랑이 일생 순결하게 살지 못할까 人間不可無一生童貞
19. (하느님밖에) 다른 건 없다 無他
20. 먹거리 끊고서 얻은 느낌 斷食有感
21. 뜻하였으나 못 이뤄 意欲未遂
22. 일어나(靈我) 아트만(Atman)
23. 거짓 님에 굽히지 말자(1) 不拜偶像(一)
24. 거짓 님에 굽히지 말자(2) 不拜偶像(二)
25. 거짓 님에 굽히지 말자(3) 不拜偶像(三)
26. 거짓 님에 굽히지 말자(4) 不拜偶像(四)
27. 거짓 님에 굽히지 말자(5) 不拜偶像(五)
28. 하느님 아버지만이 계십니다 父在
29. 그대는 못 보았는가, 해 아래 새 일이란 없다는 것을... 君不見日下無新事
30. 먹기만을 꾀하면 먹거리도 모자란다 謨食未足食
31. 위로 나 하느님 아들 되어야지, 아래로 낳아 땅의 아비 되랴 上天子 下地父
32. 다 함께 제나의 죽음을 조상하자 大同弔
33. 너무도 고마워 쓰는 글 多謝詞

제2편

1. 솟나 있으리 超有

2. 참말은 말이 없다 眞言無辭
3. 굳은 곧이는 움직 안 해 貞固不動
4. 사람 생각 人間思想
5. 연꽃은 물에서 나온다 蓮花出水
6. 사람의 삶이란 곧아야 人之生也直
7. 사람이 무엇으로써 서야 하나 人所以立
8. 얻나를 깨달음 得道
9. 이 무엇인가(이 뭇꼬) 是甚?
10. 어리석음을 깨우침 擊蒙
11. 넉넉한 이의 노래 富者吟
12. 가난 속에 앓는 이들 찾아보다 問病貧
13. 나뉘져 있는 개체(個體) 有分存在
14. 이처럼 조용하다 如是閒
15. (하느님의 열이) 꺼지고 살아나는 인류 역사 消息通鑑
16. 텅 빔과 알참 虛實
17. 하느님 太一
18. 혼인 축하 昏祝
19. 이르기를 하느님을 생각하라 命窮神
20. 그리스도란 이름 基督名義
21. 하늘나라로 솟남 峻極于天
22. 죽는 삶 死生
23. 말씀 사림 言辭詞
24. 옳음에 똥림이 기도이고 바름에 다다름이 바뀐이다 義通乎?質達乎易
25. 하나(전체 ? 하느님)를 붙잡아야 得一
26. 나서는 죽는다 生死
27. 사람이 사람을 바라는 것은 잘못이다 人望人妄
28. 떠나가는 말씀 逝辭
29. 빈 맘 無心
30. 사랑을(나를 버린) 기림 慈(我可廢)頌
31. 같다는 것도 다르다. 세대는 같아든다 同也異世也代
32. 마루님(하느님)에 머리 두면 발이 종이 이를 데를 알아 이르리라 頭頭足足知至至之
33. 아낌 齎

제3편

1. 걸 사림 좋아하다가 잘못된다 皮相交好終失意
2. 아름다움은 (작은 것의 마침에 있고), 착함은 (한 가지로 하나에 돌아감), 참됨은 (비어 없는 큰 것임)(美善眞)
3. 좁은 길 넓은 길 吉凶道
4. 영원(하느님) 終古

5. 하느님은 죽지 않는다 谷神不死
6. 눈 맞침(먼 눈) 目的
7. 삼독 벌레 三毒蟲
8. (하느님은) 바르다 公平
9. 앎 識
10. 참으로 굳은 것은 굳지 않다 固固不固
11. 사람 人間
12. 하느(으뜸)님 사랑 元仁
13. 하늘 그물은 널찍하되 (빠뜨리지 않고) 사람의 그물은 촘촘하되 (빠뜨린다) 天網恢恢 人罟數
14. 니르바나 님 涅槃
15. 위아래를 알고서야 識而上下
16. 일어나를 간직함 守靜篤
17. 얼숨(생각 목숨) 惟命
18. 이제 여기 現住
19. 스스로 힘쓰기를 쉬지 않는 사람 自彊不息人
20. 세상 잊은 말 忘世間詞
21. 옆드린 뱀 偃蛇
22. 위로 나아가는 한 길 向上一路
23. 이 글월(진리)의 조용한 말씀 斯文閑談
24. 붓다(Buddha)를 그린다 思慕能仁
25. 얼 목숨 性命
26. 제나와 일나 我我
27. 멀리서 보며 사랑함이 옳다는 말 可遠觀愛說
28. 하루(오늘) 일로 참에 이름 日課至誠
29. 일사랑 찾는 노래 求仁吟
30. 하느님의 일하심이 곧바르다 天行健
31. 이 벗이 참을 말한다 維友道幹
32. 어디서나 임자됨은 본디 일어나이다 隨處爲主本來性命
33. 한 번 펼쳐볼라치면 一展可覽

다석 류영모 연보(多夕年譜)

■ 저자 소개

박영호(지은이)

1935년에 태어나 한국전쟁 때인 1952년(17세) 공업학교를 다니던 중 헌병대로 징집되어 참혹한 살육을 목격한 뒤,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깊은 갈증을 느꼈다. 이후 함석헌을 만나 천안에서 3년간 농장생활을 같이했고, 1959년 함석헌의 스승인 류영모의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오직 다석 사상의 연구와 실천에 삶의 모든 것을 바쳐 왔다.

박영호는 다석에게서 졸업장을 받은 다석의 유일한 직계 제자이다. 1970년경 스승으로부터 졸업증서라 할 수 있는 ‘마침보람’을 받았다. 류영모가 박영호의 사상을 인정하고 독립을 후원해준 까닭은 그의 치열한 공부와 한결같은 수신과 학문적인 전진을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스승의 기대에 부응하듯 박영호는 1971년부터 1985년까지 14년의 분투 끝에 다석 전기 『진리의 사람 다석 류영모』를 펴냈다.

다석 전기를 비롯해 『다석 류영모 어록』, 『다석 류영모 명상록』, 『다석 류영모의 열의 노래』, 『다석 마지막 강의』 등 다석 관련 저서를 10여 권 펴내 스승을 세상에 알렸다. 일간 신문에 ‘다석 사상’ 시리즈를 325회 연재했고 이를 묶어 『다석 사상 전집』(전5권)을 펴냈다. 또 『잃어버린 예수』, 『다석 류영모가 본 예수와 기독교』 등의 신학 저술을 꾸준히 선보였다. 현재는 “다석 류영모 낱말사전” 편찬에 막바지 공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석학회(엮은이)

다석학회는 세계사적 사상을 일관지—以貫之한 우리 겨레의 자랑스러운 사상가이자 영성가임에도 온전히 자리매김되지 않은 다석 류영모의 사상을 연구하고 보급하며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다석 류영모가 남긴 글이나 강의 원고를 정리하고 책으로 출간한다. 둘째, 다석 류영모의 원전 연구를 통해 다석 사상을 다양하게 계승 발전시킨다. 셋째, 다석 사상을 번역 작업을 통해 국외로 널리 알린다.

홈페이지 <http://www.dasuk.kr/>

이메일 kyuew@naver.com

전화 02-823-5867

26. 제나와 일어나 我我

(나란) 틀림없이 타버린 불뚱이요	明明白白火燼末
(삶이란) 사실은 물거품이라	事事實實水泡沫
말씀은 마음에 꼭 간직할 빔의 일어나	中庸服膺自公空
탐 · 진 · 치를 쓰러다간 지레 까무러쳐	利用貪瞋痴昏絕
	(1966. 6. 19)

明明白白(명명백백): 아주 명백한. 明: 분명할 명. 白: 분명할 백. 燼: 불뚱 신. 事實(사실): 실제로 있는 일. 實: 사실 실. 泡沫(포말): 물거품. 泡: 물거품 포. 沫: 거품 말. 服膺(복옹): 마음에 간직하여 잊지 않고 늘 생각함. 服: 생각할 복. 膺: 가슴 옹. 昏絕(혼절): 정신이 혼미하여 까무러침. 昏: 어지러울 혼. 絕: 그칠 절.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의 의사 전달이 어긋나서 성공적인 사랑이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 사람 사이의 의사 전달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의사 전달의 방편인 말을 바로 알아듣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더구나 예수 · 석가와 같은 성인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또한 잘못 알면 그 오류의 파장이 엄청나게 큰 것이다.

류영모는 말하기를 “말은 듣는 이가 들을 줄을 알아야 한다. 듣는 이가 들을 줄을 모르면 말은 다 쓸데없다. 들을 컷구멍이 바로 뚫리지 않으면 보살이나 천사가 아니라 하느님이 말해도 소용없다. 저도 사람이니까 바로 알아들을 수도 있긴 하지만 자꾸 삼독의 욕심이 그 길을 막는다. 예수나 공자가 말씀할 당시에 사람들이 스승의 말씀을 알고 따랐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요한 16:12-13)라고 한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이 얼마나 하느님의 열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예수의 말을 못 알아들은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나’에 대한 것이다. 예수가 위로부터 나아 한다(요한 3:3)는 것은 내가 둘이라는 말이다. 그것은 위로부터 난 이와 아래에서 난 이를 나누는 데서(요한 8:23) 더욱 분명하여진다. 그 두 나는 아버지가 낳아준 제나(自我)와 하느님이 낳아준 일어나(靈我)이다. 제나는 양친에 속한 것이고 일어나는 하느님에게 속한 것이다. 예수도 몸으로는 아래서(아버지) 낳고 열로는 위에서(하느님) 난 것이다. 아래서 난 제나는 멸망하는 생명이요 위에서 난 일어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나란) 틀림없이 타버린 불뚱이요”(明明白白火燼末)

1986년 1월 29일 오전 1시 38분(미국에 시간으로는 28일 오전 11시 30분)에 발사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75초 만에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공중 폭발하였다. 챌린저호가 사라진 자리에는 챌린저호가 남긴 연기가 흰 백조 한 마리를 그리더니 그 백조마저도 곧 사라져버렸다. 7명의 우주인은 우주인의 꿈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우주장(宇宙葬)을 치른 것이다. 사람의 평균수명이 75살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75년의 삶이 그 75초와 무엇이 다른가. 이처럼 나란 화연무(火煙霧)일 뿐이다.

성냥개비에 불을 일으켜 다 타버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15초다. 사람의 일생이란 성냥개비 한 개가 불이 붙어서 타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70년을 살아야 2억 2천 초를 사는데 영원한 시간에 비교하면 15초에 지나지 않는다. 성냥개비가 다 타고 나면 화진말(火燼末)일 뿐이다.

사람의 일생이란 밤하늘에 문득 나타나 갑자기 사라지는 별뚱별이다. 별뚱별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 동안이다. 류영모는 1890년에 나타나 1982년에 사라졌다. 90년 세월이 1초 동안과 다르지 않다. 사람의 일생이 별뚱별처럼 순간에 생멸하고 나면 삶이란 몽환상(夢幻像)일 뿐이다.

“(삶이란) 사실은 물거품이라”(事事實實水泡沫)

우리는 세상에서 가정살림을 하지만 세상을 지나간 뒤에 보면 빈껍데기 살림을 가지고 실생활로 여기고 산 것이다. 물질생활은 변화하여 지나가는 것뿐이다(『다석어록』).

이 세상의 살림살이라는 것이 험겍기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연자 맷돌을 돌리는 일이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끌고다 언덕을 오르는 길이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꺼진 물거품이요 깬 꿈자리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옛 승조(383~414)는 31살의 나이에 망나니 칼날 아래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면서도 내 목이 잘리는 것이 아니라 봄바람을 자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승조는 제 목이 잘리는 현실 앞에서 이것이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목을 자른 망나니는 어디에 있으며 목이 잘린 승조는 어디에 있는가. 꿈속의 꿈이니 승조의 말이 옳은 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도 진리와 이상이 언제나 사실과 현실에 밀린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끌고다를 오르는 것은 진리와 이상을 좇기 위서였다. 몸은 죽게 되어 있는 운명인데 이렇게 죽으면 어떻고, 저렇게 죽으면 어떻단 말인가. 진리와 이상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만인 것이다. 진리와 이상을 위해 죽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죽는 것이다. 질항아리를 버리고 금 항아리를 얻어도 기쁨 터인데 죽을 몸생명을 버리고 영원한 열생명을 얻는다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 이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몸 하나 가졌으니 평안할 수 없다. 그러니 이 몸이 병이다. 제법 이 몸이 7, 8십 년 간다 하여도 형편없는 것이

다. 이 몸을 참나로 알고 붙잡히면 이 짐승인 몸에 잡아먹혀 버린다. 이 짐승인 몸나를 따르지 말고 일어나 하느님 아들의 길을 가야 한다. 몸으로서의 삶은 무상(無常)하다. 이 세상에서 물질로 된 것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듯이 한 번 픽 웃고 죽을 수 있다(『다석어록』).

“말씀은 마음에 꼭 간직할 빚의 일어나”(中庸服膺自公空)

“가온이란 우주의 큰 밑둥이다”(中也者天下之大本—『중용』 1장)라고 하였다. 우주의 근본이란 우주의 임자인 하느님이란 말이다. 하느님은 나요, 열이다. 하느님만 나이고 사람은 거짓 나이다. 그런데 거짓 나를 나라고 하는데 버릇이 되었다. 그래서 하느님을 참나라고 한다. 하느님은 열이다. 사람은 하느님의 열을 받아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 하느님으로부터 열을 받아서야 나도 참나 노릇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중용복용(中庸服膺)인 것이다. 참나인 하느님의 열을 받아 마음속에 꼭 간직한다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하느님의 열을 받아 일용할 먹거리로 한다는 말이다.

류영모는 말하기를 “일나라는 생각밖에는 이 사람은 생각이 없다. 일어나가 중심이다. 모든 것이 일어나는 예(여기)가 원점이 되어서 나온다. 일어나에는 묵은 것도 새것도 없다. 일어나가 중심이다. 불교의 중도(中道), 노자(老子)의 수중(守中), 유교의 중용(中庸)이 다 일어나이다. 일체가 일어나(절대)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느님(니르바나)이신 일어나는 제나(自我)가 아닌 참나이다. 비타(非他)라 자(自)이고 비사(非私)라 공(公)이고 비물(非物)이라 공(空)이다. 류영모는 빚(空)에 대해서 말하기를 “빚(空)은 맨 처음인 생명의 근원이요 일체의 근원이다. 빚(空)은 하느님이다.” 또 공(公)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의 참나는 공통의 일어나이다. 참나인 하느님만이 안 죽고 영생한다. 구경은 참나인 일어나를 깨닫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탐·진·치를 쓰려다간 지레 까무라쳐”(利用貪瞋痴昏絕)

류영모는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날 입 달린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얌전해도 못쓴다. 정직한 사람은 못사는 세상이라고 말한다. 이 세상은 거의 세기말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느님의 아들이 살고 있다. 하느님의 아들들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악에 무릎을 꿇지 않고서 버티고 있다. 그들이 없다면 세상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다석어록』).

무하마드(마호메트)는 고아로 고독한 가운데 하느님께 매달리며 하느님의 열을 받았다. 거기까지는 다른 성인들과 다름이 없었다. 칼라일이 무하마드를 영웅으로 내세울 만하였다. 그런데 무하마드는 예수처럼 순교로 끝내지 못하고 박해를 이겨내기 위하여 탐·진·치의 수성(獸性)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무하마드가 깨달은 진리정신은 피비린내로 혼절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무하마드가 수성(獸性)을 끝까지 죽이지 못하고 이용하게 된 것은 인류의 손실이요 비극이다. 오쇼 라즈니쉬도 거의 깨달음에 이르러 고서도 죽었던 제나가 살아나 탐·진·치의 수성(獸性)을 이용하다가 느지른내로 진리정신을 그르치고

말았다. 인류가 통곡할 참으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적으로 참기 어려운 시련을 다석사상으로 이겨낸 이(전미선)가 있다. 『다석어록』을 거듭거듭 읽고서 믿음과 지혜를 얻었으며 류영모의 한 마리 생선과 헤르만 헤세의 기도를 외우며 일어나려는 제나(自我)와 싸우고 있다. 제나와 싸워 이길 때마다 마음속에 신비와 기쁨이 가득 참을 느낀다.

한 마리 생선

류영모

한 마리면 몇 토막에 한 토막은 몇 점인가
하루하루 저머니 어느덧 끝점 하루
하루는 죽는 날인데 만날 수만 여기네(외 3수)

기도

헤르만 헤세

하느님이시여, 저를 절망케 해 주소서
당신에게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미혹의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시고
온갖 고뇌의 불꽃을 활게 하소서
온갖 모욕을 겪도록 하여 주시옵고
내가 스스로 지탱해 나감을 돕지 마시고
내가 발전하는 것도 돕지 마소서
그러나 나의 자아가 송두리째 부서지거든
그때에는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당신이 불꽃과 고뇌를 낳아 주셨다는 것을
기꺼이 멸망하고 기꺼이 죽으려고 하나
나는 오직 당신의 품속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연

도서출판 동연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63-3

전 화 02-335-2630

팩 스 02-335-2640

이메일 h-4321@daum.net